

“영상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도 옛날이야기에 웃고 울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할머니' 주필녀 씨

한국국학진흥원 교육 거친 후 활동
2013년 시작 아이 인성교육 도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받아
한 해 이야기 35편 외운 뒤 들려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 ‘옛날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시시하다 여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주필녀(72) 할머니는 유튜브보다 훨씬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로 아이들을 웃기고 울린다.

주 할머니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야기 할머니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옛 전래동화나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만 56~74세의 여성 어르신들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대구에 196명, 경북에 240명의 이야기 할머니들이 어린이들에게 옛날이



주필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13년부터 이야기 할머니가 된 주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이 활동을 시작했다. 평소에도 어린이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취지에 공감해 이 활동에 섰 뜻 지원했다”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나랑 너무 잘 맞아서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애썼고, 자녀들과의 스

케줄도 모두 이야기 할머니 활동과 겹치지 않게 맞추려 노력하는 등 열정 넘치는 ‘이야기 할머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주 할머니가 한 해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약 35편 정도. 할머니는 옛날이야기들을 모두 외워서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이야기 대부분을 받으면 주인공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악당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외운다. 나이 때문에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외워질 때까지 여러 번 노력하다 보면 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단다.

그렇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이야기에 푹 빠져 들어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주 할머니는 이야기 할머니로서 활동하는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 때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웃게 만들기도 한다.

“한석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였죠. 한 아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푼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걱정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그

아이는 ‘한석봉이 불 끄고 글씨를 쓴 뒤 어머니에게 쫓겨날 때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명필이 됐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달래줬던 기억이 나네요.”

주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특히 4년 전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할 때에는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다. 주 할머니는 “그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던 마지막 날 아이들이 내게 안겨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곳 선생님들도 ‘손주처럼 아이들을 살갑게 대해 주신 분은 어르신이 처음’이라는 말을 들은 뒤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 할머니는 “앞으로 커 나갈 아이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보람 있는 활동이 ‘이야기 할머니’ 활동”이라며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꼭 한 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글 사진 이화섭 기자 lhssk1@maeil.com

그림습니다

이원근(전 동대구초교 교장) 씨의 할머니 고 이돌이 씨

문자를 스스로 터득한 뒤 동네 노인들에게 소설책 읽어 주셨습니다 임종 무렵 “얼굴 한번 보고 간다”며 방문 열어 놓고 저를 기다리셨죠

할머니가 저희 곁을 떠나가신 지 30주년 되는 날 저녁에 모두 모였다. 성격이 할머니를 닮은 데가 있는 큰고모는 얼마 전 타계하셨고, 작고 고모께서 모처럼 참석하셨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인물평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하셨는데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이러하다. 할머니께서는 매우 총명해 문자를 스스로 터득하여 동네의 사돈지는 도맡아 쓰셨고, 동네 노인들이 오일장에 가서 10전 소설을 사 들고 오면 한 방 가득히 할머니 친구,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읽어 주시곤 하셨다.

그리고 성격이 날카롭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셨다. 또한, 무슨 걱정거리라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작은 걱정거리라도 그것이 풀릴 때까지, 뾰족한 수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라도, 몇 날 며칠이고 풀릴 때까지 고민해야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이였다. 모두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한 가지씩은 늘어놓았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 하나가 있다. 초등학교 입

학 전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가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좋아서 따라나섰으나 막상 외가에 도착하고 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집에 가자고 보채 보았지만,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었다. 땅거미가 스멀거리는 시각에 4km가 넘는 길을, 그것도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제(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산길을 넘어야 하는 이제곡을 혼자 나섰다.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는 무서움이 덜했지만, 마을이 보이지 않게 되자 무서웠다. 내 발소리에 놀라 기절할 뻔도 했다.

그렇게 어둑어둑해지는 산길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도 모르고 달리고 넘어지면서 집으로 왔다. 모처럼 친정에 가신 어머니도 결국은 하루도 묵지 못하고 내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집에 도착하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사색이 되어 돌아오셨다. 지금 생각하니 사춘기 때 어떠한 이성에게도 그러한 그리움을 느껴 본 기억이 없다. 지금껏 그만큼 미치도

록 그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와 할머니와의 관계는 대대로 자손이 귀한 집의 장손인 데다 두 살 터울로 태어난 동생에게 엄마 젖을 빼앗긴 탓에 할머니 빈 젖을 물고 자라면서 더욱더 애뜻한 정이 쌓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내가 생각해도 나를 편애하셨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보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 한시도 보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보고 싶어 안달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아련하다.

월남전서 귀국해 강원도 대성산 최전방 어느 보병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연이를 동안이나 뽀니가 빠지는 꿈을 꾸었다. 아하! 할머니께 무슨 변고가 있는 모양이라고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관보가 후방 본대에 도착해 내게 전달되기까지는 또 며칠이 더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고 나서야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혼자 숨어서 밤새워 울었다. 집에 도착하여 보



이원근 씨의 조모 고 이돌이(왼쪽) 씨와 종조모가 함께 찍은 사진.



이원근 씨 가족 제곡 사진.

니 내 생각대로 장례까지 치르고 난 후였다. 전날 밤새워 온 탓인지 이상하리만큼 답답한 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그냥 어디 마실이라도 가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나의 그러한 행동에 삼촌께서 몹시 패담하게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토록 서로가 좋아하고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임종 무렵에는 이른 봄의 추운 날씨에도 나를 기다리라고 방문을 열어 놓고 계셨다니 병간호하는 사람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밖에서 뽀스락 소리만 나도 ‘인자 오느구나. 나가 봐라’고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얼굴이나 한 번 보고 가야 한다고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도 숨을 놓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래

서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기다리지 말고 가시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내셨던 모양이다. 이토록 못난 손주를 숨을 놓지 못하고 기다리다 가셨는데 막상 손주 늙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했으리라.

아직도 할머니는 내 곁에 계신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달려가 볼 수 있는 대니산 자락, 지적에 계시고, 내 옆에서 “슬프다. 꿈길 같은 우리 인생은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이로다. 인자, 다 이자뿌다. 새로 하께?” 하고 내게 묻고 계신다. 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보고 싶어진다. 꿈에서라도 한 번 뵈고 싶다.

손자 올림

일양약품
www.ilyang365.co.kr

아직도 유산균만 드시나요?

프로콜D는 유산균과 함께 콜라겐 [부원료] 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 장까지 살아서 가는 마이크로캡슐 유산균!
40억마리 투입, 1억마리 보장
특허받은 기술력
프로콜D에는 세계3대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사의 특허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2중 코팅기술로 유산균을 보호해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19종 생유산균으로 장을 지켜주세요!

3 특허받은 한국인에 친숙한 김치유래 유산균!
김치유래 유산균 + 모유유래 유산균
특허 받은 김치유래 유산균과 모유유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유산균과 콜라겐(부원료)을 하나로!
프로콜D는 신바이오텍스 생유산균과 **저분자 피쉬콜라겐** (부원료) 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특별함

4 프리미엄 3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텍스'
프로바이오텍스 + 프리바이오텍스 (부원료)
유산균 먹이원함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텍스(부원료)를 먹고 더 활발해진 유익균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프로콜D 이런 분은 꼭 드셔보세요

- ☑ 장에 가스가 차고 변 보기가 힘든 분
- ☑ 규칙적인 배변을 원하시는 분
- ☑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배변을 원하시는 분
- ☑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아 불편하신 분
- ☑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이 필요하신 분
- ☑ 배가 더부룩하거나 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
- ☑ 장내의 유산균 및 유해균의 밸런스가 필요하신 분
- ☑ 뼈의 형성과 유지 및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가 필요하신 분

[장 건강 (프로바이오텍스) + 뼈 건강 (비타민D) + 정상적인 면역기능 (아연)]

NAVER 프로콜D 검색

온가족함께 즉시구매 6+4 6박스 구매시 4개월분 더!!

상담문의 ☎ 080-808-1616